

보도자료

2019년 5월 15일(수) 조간(온라인)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빛마루방송지원단 차장 김형경(031) 8073-0205

배 포: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차장 현우진(061) 350-1323

미스트롯 촬영장 KCA빛마루, 중소제작사를 위한 제작시설 이용료 대폭 할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원장 서석진)이 운영하는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이하 빛마루)는 중소기업과 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초부터 제작시설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했다고 밝혔다.

'17년부터 방송 제작시설로는 처음으로 이용대상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했던 빛마루는 올해 4월말 운영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 추가 할인 폭을 넓혀 적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눈여겨 볼 내용으로는 이번 달부터 KCA가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빛마루 이용요금제의 전면개편으로 스튜디오 월정액 요금제와 중계차 소형사업자 할인 구간을 신설하였다.

특히, 제작시설의 소기업(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요금구간을 신설하여 최대 40~60%까지 할인율을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중기업(평균매출액 50억~800억 이하), 대기업(평균매출액 800억 이상)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덧붙여서 빛마루 입주사는 해당요금의 20% 추가 할인 혜택도 신설했다.

또한 최근 미스트롯을 촬영한 빛마루의 스튜디오는 500평형(1개), 300평형(1개), 150평형(4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계차는 HD(19톤 및 5톤 각 1대), UHD(16톤 1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임대 가능하다.

빛마루 류영준 센터장은 “운영기관 단일화 첫 해를 맞아 중소PP와 제작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요금할인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요금 외에도 이용자를 위한 편의기능을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작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